



2019년 증권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

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

증권산업 재무 현황: 수익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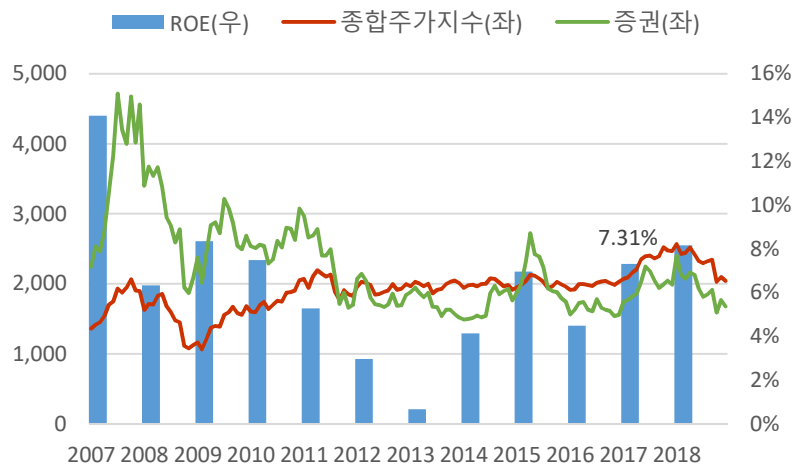
- 2018년 국내 증권산업은 ROE 기준 8.15%로서 전년 대비 0.84%p 증가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수익성을 기록

‣ 수익성 개선은 상반기 주식시장의 호조와 IB 부문의 성장이 주도

- 2019년 국내 증권산업은 전년 수준의 수익성 유지가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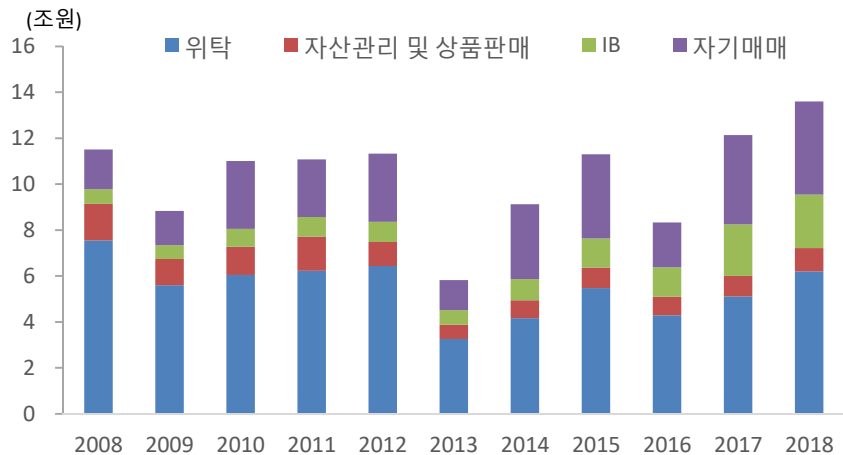
- 경기둔화, 무역전쟁, 부동산경기 침체 가능성 등 대내외적 불안정 요인이 크지만, 금리변동성이 제한적일 가능성, 주식시장 불확실성에도 하방 리스크의 제한 요인 등 우호적인 면도 존재
- 한편,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규제 완화, IB 업무영역 확대 등은 우호적 환경 요인이 될 것임
- 비용절감 및 IB·자산관리로의 사업다각화 노력이 수익개선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

국내 증권산업 연도별 수익성 추이



주: 1) 2013년 회계연도 변경으로 조정
 2) 2018년은 비교를 위해 2017년 10월-2018년 9월까지의 실적으로 계산
 자료: FnGuide, 증권업원내자료,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

국내 증권산업 부문별 순영업수익



주: 1) 2013년 회계연도 변경으로 조정
 2) 2018년은 비교를 위해 2017년 10월-2018년 9월까지의 실적으로 계산
 자료: 금융감독원, 금융통계정보시스템

증권산업 일반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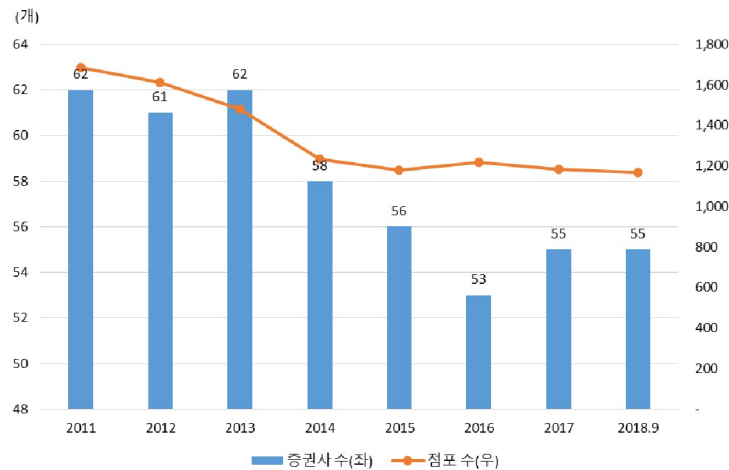
○ 2018년 9월 현재 국내 증권회사 수는 55개로서 2017년 말과 동일

- ▶ 지난 수년 간 신규증권사도 외국계로 제한적인 진입
- ▶ 그러나, 디지털 혁신기술 기반 핀테크업체의 증권업 진출 가능성은 커지고 있음

○ 2018년에도 점포 수는 비용효율성 차원에서 감소 추세가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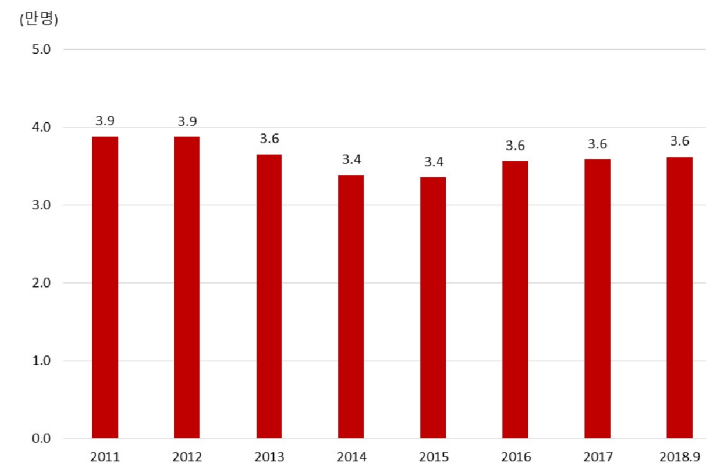
- ▶ 점포 수 지속적 감소: 1,219(2016) → 1,184(2017) → 1,169(2018)
- ▶ 증권회사 전체 임직원 수는 3.6만명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소폭 증가

국내 증권회사 수 및 점포 수 추이



자료: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

국내 증권회사 임직원 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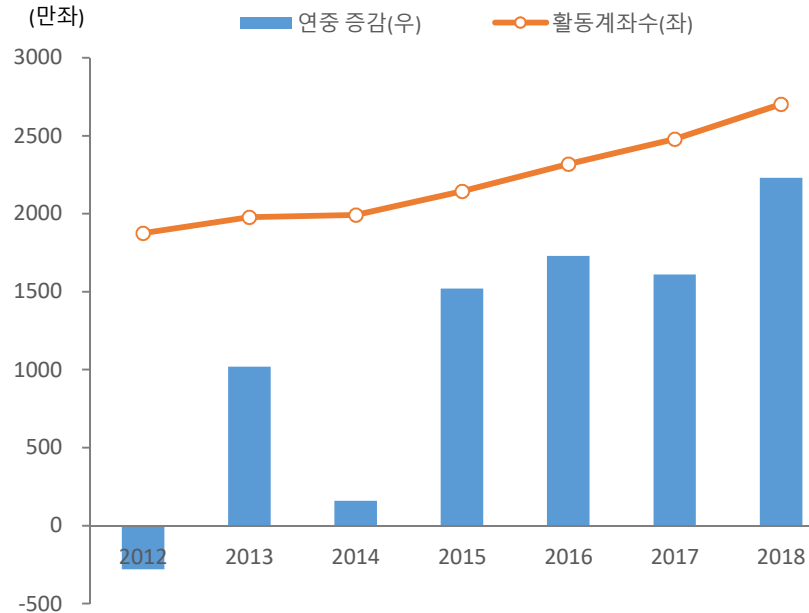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

증권산업 추세 및 전망: 위탁매매 (1)

○ 2018년 주식거래 활동계좌수, 일평균 거래대금, 매매회전율이 2017년 대비 크게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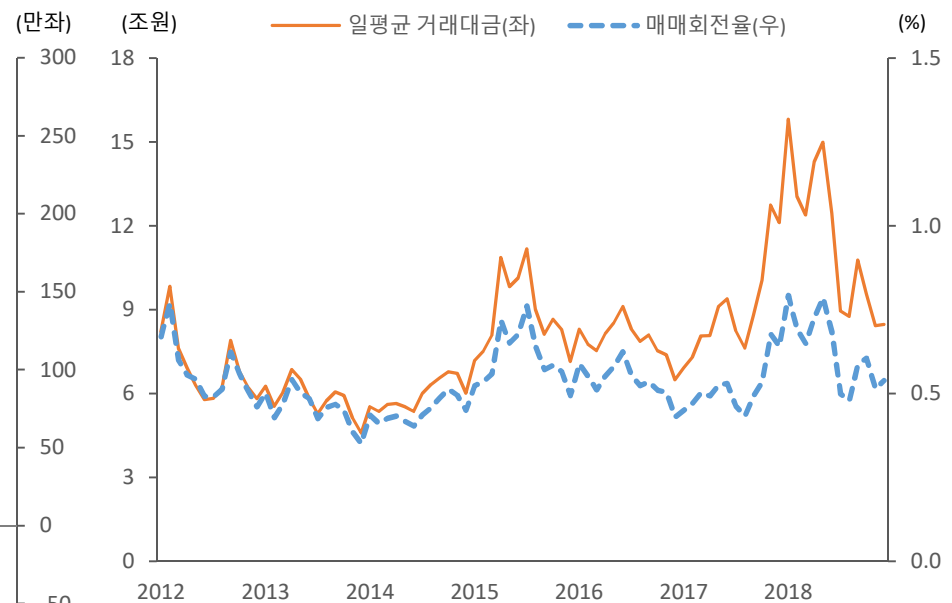
- › 2018년말 주식거래 활동계좌수는 2,702만좌로 2017년 대비 223만좌 증가
- › 일평균 거래대금도 11.49조원으로 2017년 대비 2.46조원 증가
 - 2018년 초반 KOSPI 지수 상승은 거래대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
- › 매매회전율은 2018년 하반기 하락하였으나 2017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

주식거래 활동계좌 추이



자료: 금융투자협회

주식시장 매매거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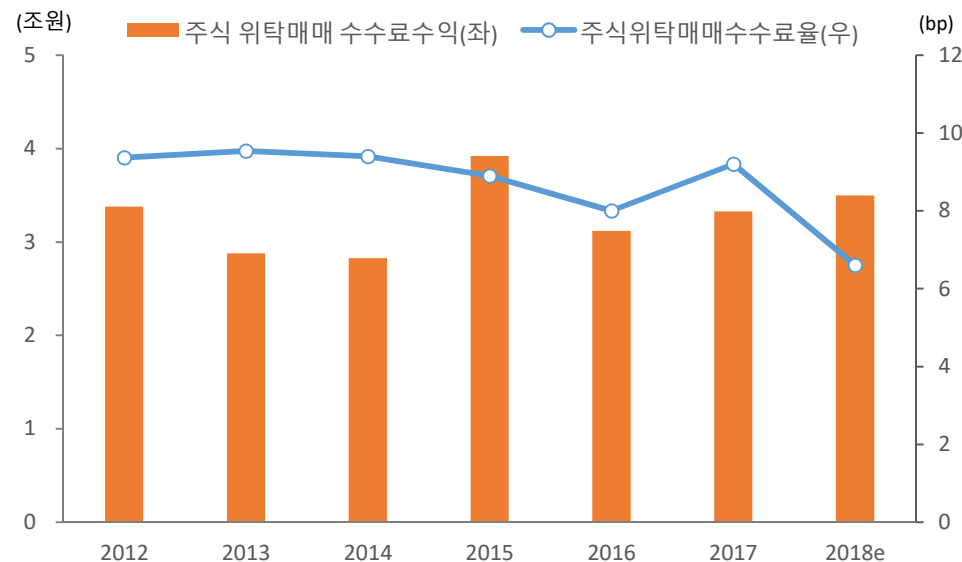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거래소

증권산업 추세 및 전망: 위탁매매 (2)

- 그러나 2018년중 위탁매매 수익은 수수료율 하락으로 2017년 대비 소폭 증가
 - › 증권사들은 비대면 계좌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수료면제 혜택 등을 제공
 - 2018년중 주식위탁매매수수료율은 6.6bp로 2017년 대비 2.5bp 만큼 하락
- 2019년 위탁매매 수익은 2018년 대비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
 - › 2018년 대비 주식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기 어렵고 수수료율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큼

위탁매매 수수료수익 및 수수료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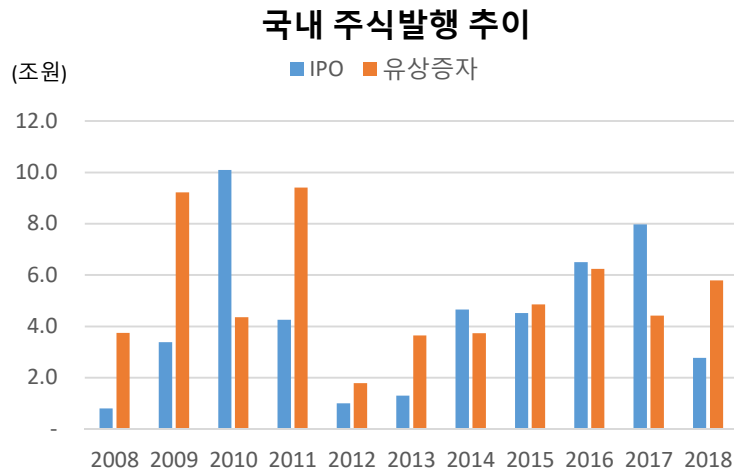


주 : 2018년 잠정치는 동년 1/4분기부터 3/4분기까지 분기별 수익과 매매대금 추세를 고려하여 4/4분기 실적을 추정한 후 계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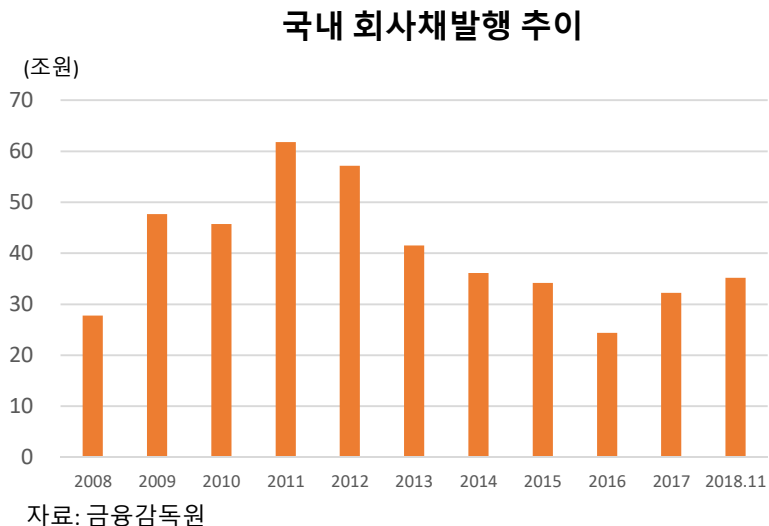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

증권산업 부문별 실적 및 전망: 투자은행(인수)

- 2018년 IPO 시장은 주식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회계감리 이슈 등으로 전년 대비 65% 감소한 2.8조원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회사채 발행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35.2조원 기록
 - ▶ 대형기업 상장 부재 및 수년간 최대 수준의 IPO 규모였던 2017년 대비 기저효과 측면
 - ▶ 회사채 시장은 경기둔화에 대비한 기업의 선발행 유인 및 연기금·보험사의 캐리 수요로 증가
- 2019년 IPO 시장은 성장세 회복이 예상되며 회사채 시장은 전년 수준 예상
 - ▶ IPO 시장은 2018년 IPO 계획 철회 대기업의 IPO 재추진과 일부 대기업의 신규상장 추진이 예정
 - 신지급여력제도(K-ICS) 도입으로 인한 금융사 자본확충 (교보생명(신))
 -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개선(SK루브리컨츠(구), 현대오일뱅크(구), 이랜드리테일(신), 호텔롯데(신))
 - 성장주(카카오게임즈(구), 바디프랜드(신), 빅히트엔터테인먼트(신) 등)
 - ▶ 회사채 시장은 경기둔화 및 금리 하향 안정으로 인한 발행수요 그리고 금융기관의 꾸준한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전체 발행규모의 증가세 지속 예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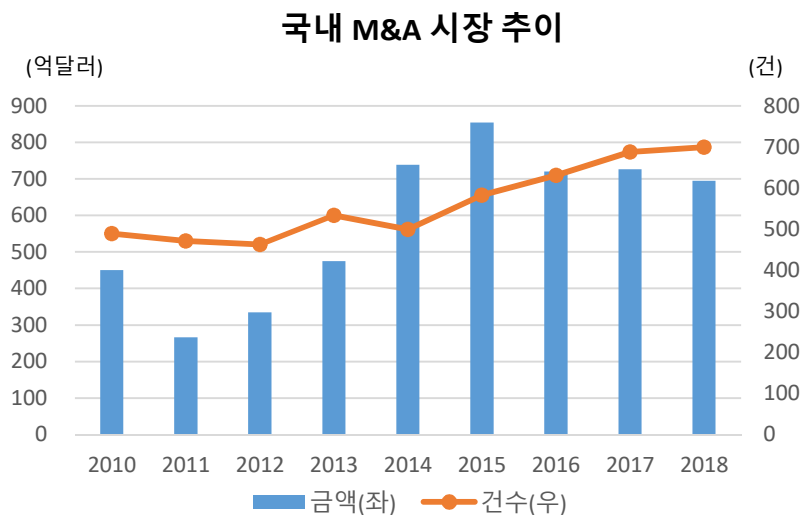
주: 2018년 유상증자 자료는 10월분까지 산정
 자료: KIND,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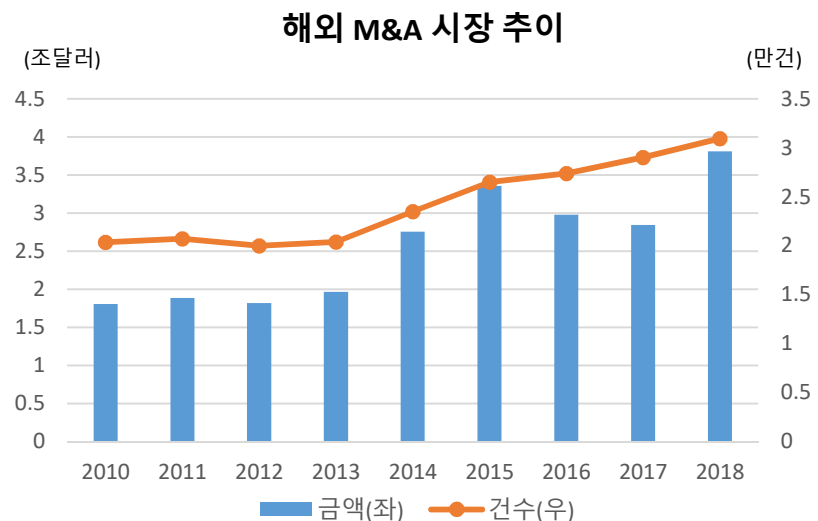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

증권산업 부문별 실적 및 전망: 투자은행(M&A)

- 2018년 국내 M&A 시장은 금액기준으로는 소폭 감소했으나 건수 기준으로는 2014년 이후의 증가세가 유지되며 성장을 지속
 - › 2018년 국내 M&A 시장은 전년대비 4.3% 감소한 600억달러, 거래건수는 700건을 기록
 - › 전년에 이어 국내 대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를 포함한 대형 국경간 거래가 시장을 견인
 - › 한편, 2018년 글로벌 M&A 시장은 금액기준 34.0%, 건수 기준 6.6%가 증가하며 활황세가 유지
- 2019년에도 국내 M&A 시장의 성장을 위한 펀더멘털의 근본적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거래규모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
 - › 대형 국경간 M&A 거래 확대, 대기업 중심의 사업·지배구조 개편, PEF의 투자·회수 지속 등



주 : 1. 완결기준
2. 표본은 인수대상, 인수기업 또는 매도인이 한국인 경우
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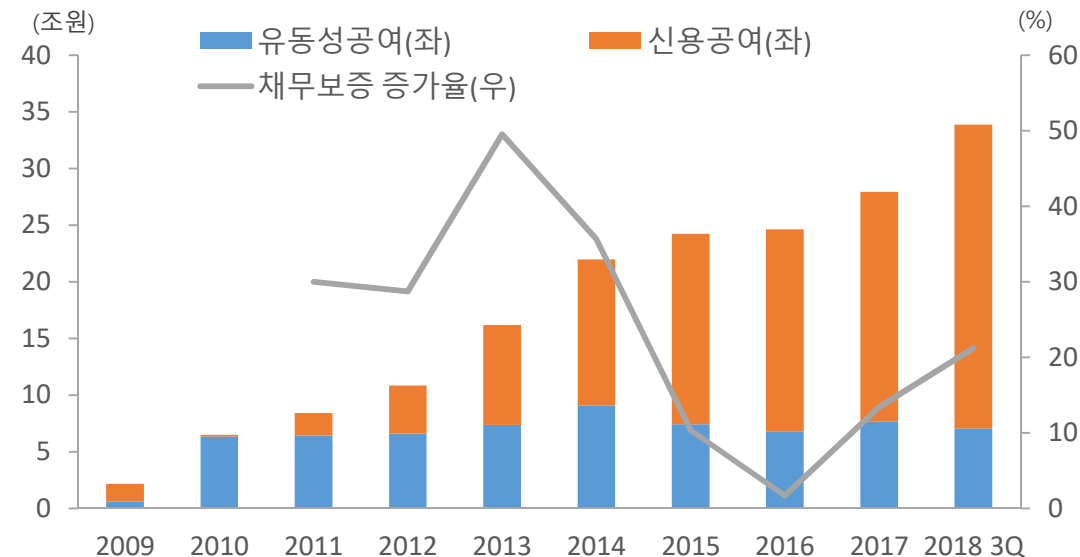


주 : 완결기준
자료: Bloomberg

증권산업 부문별 실적 및 전망: 투자은행(채무보증)

- 2018년 3분기까지 채무보증 규모가 2017년 대비 20% 초과 성장, 성장세가 확대
 - › 채무보증 중 75% 이상이 부동산PF 관련, 부동산PF에서 증권사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
 - › 증권사들은 부동산PF 관련 수익성이 높아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참여와 경쟁 심화
- 2019년 부동산시장의 부정적 전망과 규제요인 등으로 지난해와 같은 성장은 어려울 전망
 - ›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및 증권업 부동산금융 건전성관리 강화 등 시장확대의 제약요인이 커짐
 - › 규제 요인 외에도 부동산PF 위험의 증가 가능성은 증권사들의 시장참여를 제한할 가능성

국내 증권사 채무보증 규모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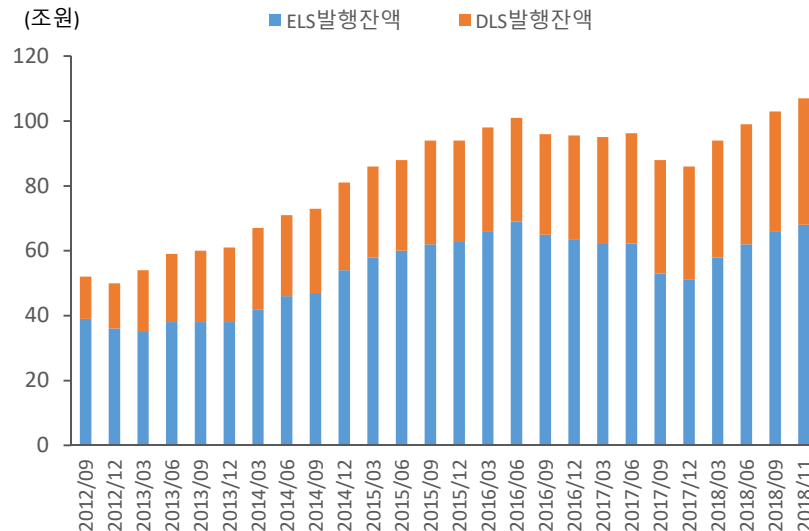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금융감독원

증권산업 추세 및 전망: 금융상품판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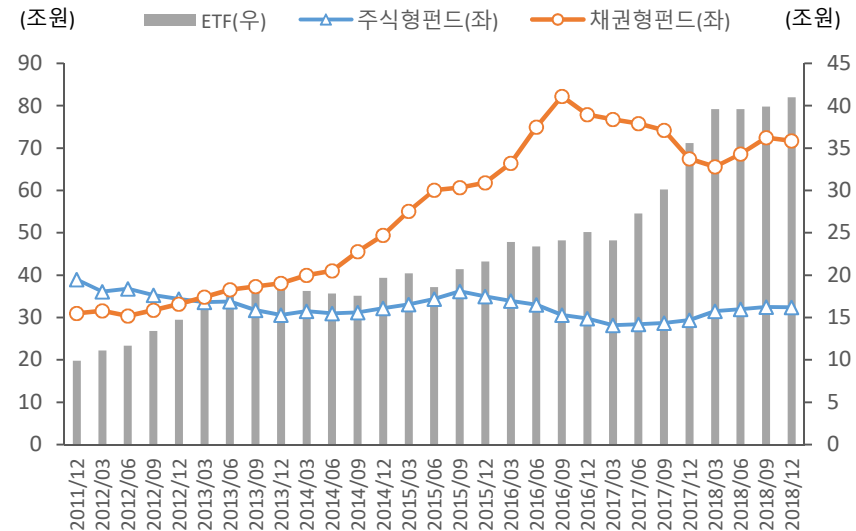
- ELS·DLS : 2018년 상반기 신규발행 증가와 하반기 조기상환 감소로 발행잔액이 꾸준히 증가, 2019년 ELS·DLS시장의 확대 가능성
 - ▶ 2018년 말 기초자산의 하락과 2019년 증시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바, 중위험·중수익 상품인 ELS·DLS 수요 증가가 예상
- 펀드 : 2018년 ETF 시장은 상반기 증시호황과 종목 다양화로 큰 폭으로 성장, 채권형 펀드 시장도 하반기부터 성장, 2019년 증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매매가 용이한 ETF 시장의 성장과 채권형 펀드 시장의 성장이 예상

ELS·DLS 발행잔액 추이



주식 : ELS 발행잔액=ELS+ELB 합계, DLS 발행잔액=DLS+DLB 합계
 자료: 금융투자협회

펀드 유형별 판매잔액 및 ETF 순자산총액 추이



자료: 금융투자협회, 코스콤

증권산업 추세 및 전망: 투자자문·자산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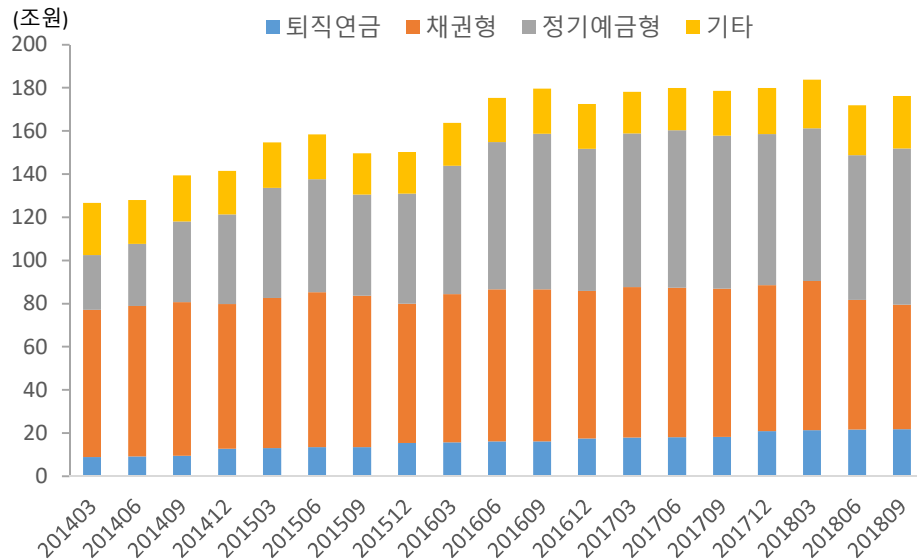
○ 금전신탁은 2018년 전반기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증가로 전환

- › 2018년 하반기 증시 하락과 불확실성 증대로 정기예금형 신탁 잔고가 증가

○ WRAP : 일임형랩은 2019년에도 지속적 성장, 자문형랩은 최근 수년간 1조원에서 정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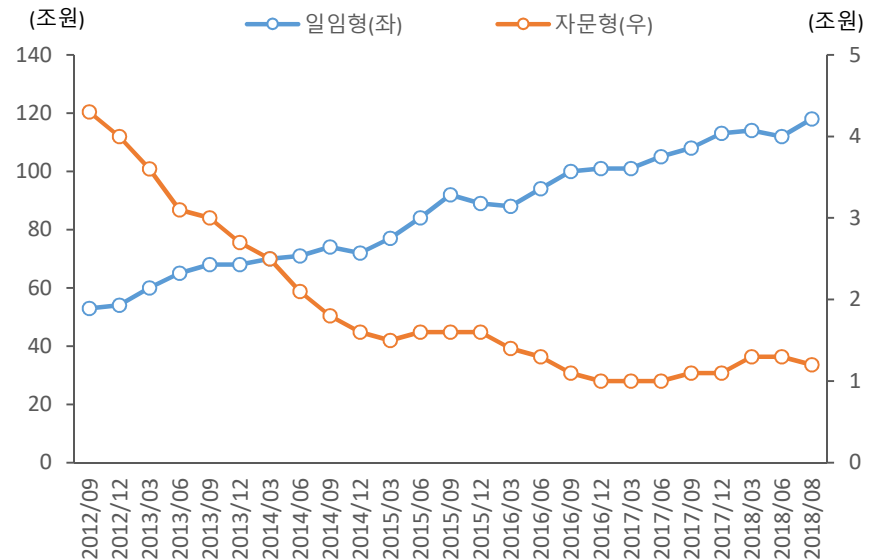
- › 저금리 지속, 시장 변동성의 증가, 그리고 기업의 투자 감소로 개인 및 법인들의 유희자금 운용을 위한 일임형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

금전신탁 수탁규모 추이



자료: 금융투자협회

랩어카운트 잔고 추이



자료: 금융투자협회

증권산업 부문별 실적 및 전망: 자기매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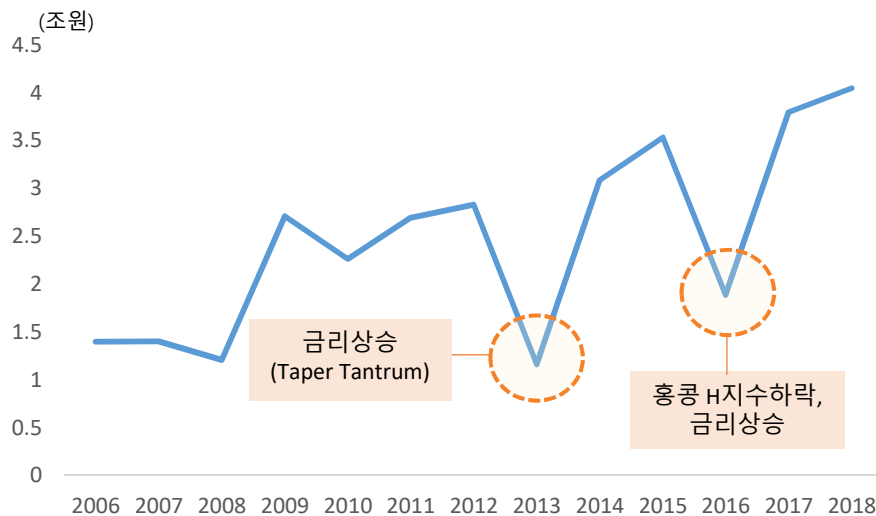
○ 2018년 자기매매 수익은 2017년 대비 소폭 상승

- › 2018년 채권수익이 전년대비 증가, 반면 주식 및 파생관련 수익이 전년대비 감소
- › 자기매매 수익은 특히 기초자산 급락이나 금리 급등에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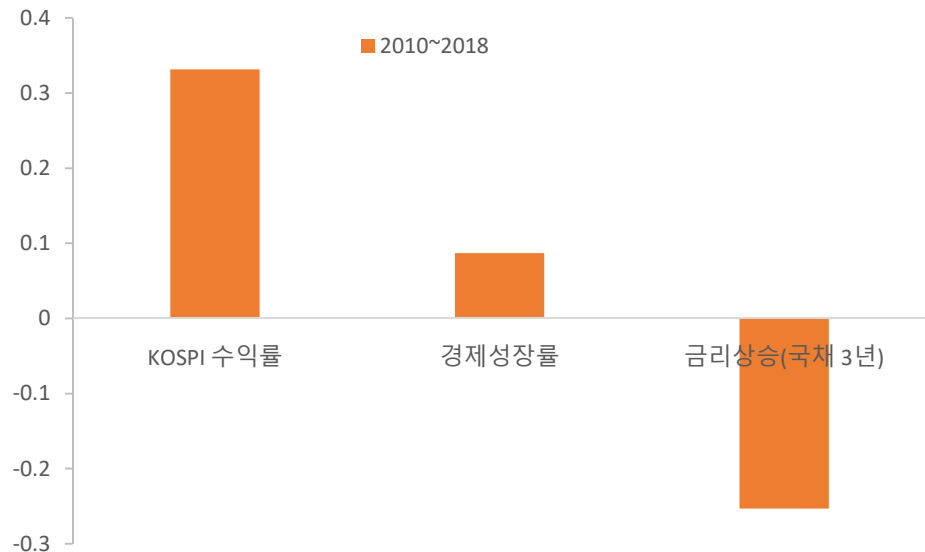
○ 2019년 자기매매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클 것으로 판단

- › 긍정 요인: ① 시장 불확실성으로 중위험·중수익 상품인 ELS 수요 증가의 가능성, ② 금리 변동성이 제한적이고 KOSPI PER과 PBR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및 외인 매수 가능성 등 주가수익률의 개선 가능성

자기매매 수익 추이



자기매매 부문과 시장지표 간 상관관계



증권산업 재무 현황: 총자산 및 건전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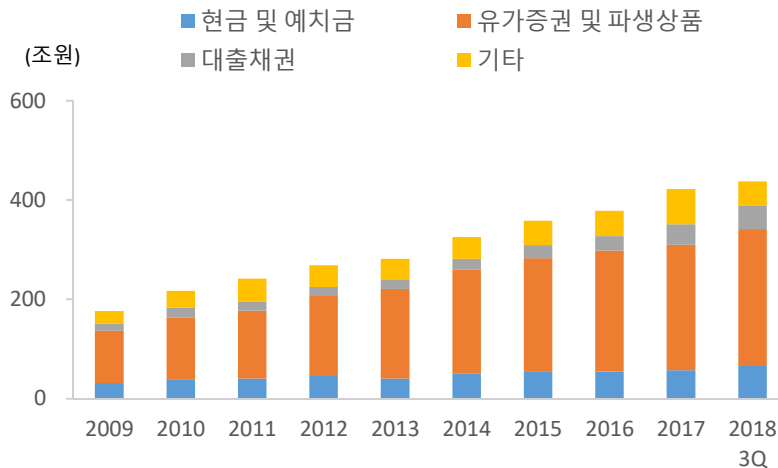
○ 2019년에도 현재와 유사한 재무구조 하에 총자산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

- › 국내 증권산업 총자산은 2018년 3분기 440조원으로 2017년 말 대비 15.3% 증가

○ 2018년 전반적으로 양호한 재무건전성 유지, 내년에도 소폭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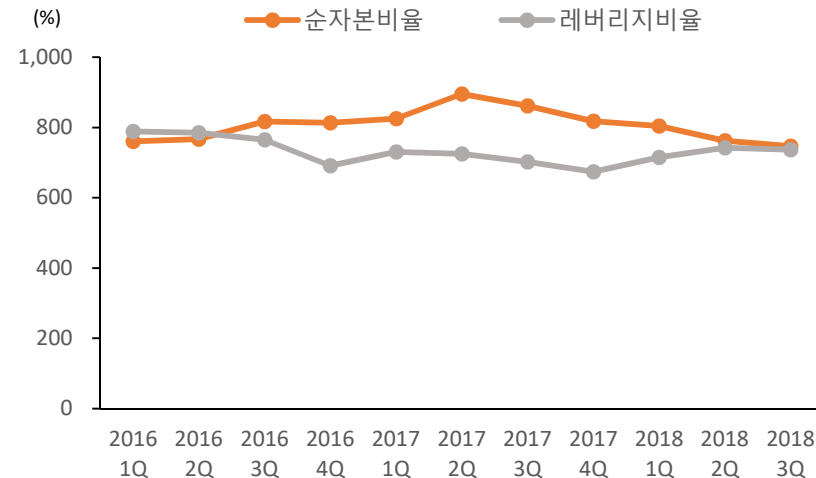
- › 순자본비율은 2017년 4분기 818%에서 2018년 3분기 746%로 하락
 - 증권사들이 IB와 PI 부문 확대 시, 현재의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사료
- › 레버리지비율도 737% 수준으로 규제수준인 1,100% 대비 일정한 버퍼를 유지

국내 증권산업 연도별 총자산 추이



자료: 금융통계정보시스템, 금융투자협회

국내 증권산업 재무건전성 비율 추이



주 : 1) 레버리지비율 = 100*조정총자산/조정총자본 2) 증권사 표본에 폐업증권사 포함

자료: 금융통계정보시스템

2019년 증권산업 이슈 (1): 디지털화(digitalization)

○ 금융산업과 디지털기술의 결합은 금융서비스의 공급방식과 구조에 근본적 변화 초래

- › 혁신적 금융상품의 개발보다는 금융상품·서비스 공급 과정의 혁신에 초점
 - 고객 접점(front-end)에서 후선 및 인프라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진행
- ›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역시 예외가 아님
 - 자산관리 및 투자서비스
 - 기업금융
 - 트레이딩
 -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
 - 시장 인프라: 매매거래, 예탁, 청산결제
- ›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에 따라 이러한 변화 가속화
 - 인공지능, 빅데이터, 클라우드 컴퓨팅, 생체기술, 사물인터넷, 블록체인, VR/AR 등

○ 디지털화의 기대 효과

- ›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
 - 금융서비스 이용의 편리성·접근성 제고, 금융소비자 비용 부담 완화,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, 금융소비자 참여(engagement) 제고
- › 금융서비스 제공 과정의 효율성 제고
 - 자동화, 서비스 처리속도 증가, 운영 효율성(operational efficiency) 제고
- › 새로운 위험요인의 등장
 - 운영위험 증가, 개인정보 보호, 보안위험 등

2019년 증권산업 이슈 (1): 디지털화(digitalization)

○ 디지털화는 금융산업/금융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음

- › 탈중개화(disintermediation), 언번들링(unbundling), 플랫폼화
- › 금융의 산업구조 재편
 - 기존의 'full-line' 금융회사 vs 다양한 'unbundled' 서비스 제공자 + 플랫폼 사업자
 - 예: full-line investment bank vs P2P 자금조달 플랫폼
- › 향후 변화 방향의 가능성
 - Scenario 1: 기존 금융회사와 새로운 플랫폼의 정면 경쟁
 - Scenario 2: 기존 금융서비스 공급 구조의 일부를 새로운 플랫폼이 대체
 - Scenario 3: 기존 금융회사가 새로운 플랫폼을 흡수, 내부화함으로써 자체 혁신

○ 정책적 시사점

- ›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산업 플레이어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진입규제를 비롯한 경쟁정책 변화를 요구
 - 기존 금융회사와 신규 진입자(핀테크) 간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금융산업 혁신 촉진 및 금융소비자 후생 극대화 추구
 - 언번들링에 따른 새로운 업무·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 방향 설정 필요
- › 고려 요인
 - 금융시스템 안정성
 - 금융소비자 보호
 - 악용 가능성(예: 범죄 자금 유통) 차단

2019년 증권산업 이슈 (2): 비대면 채널 확대

○ 증권회사 비대면 채널의 확대

- › 온라인, 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이 용이해짐에 따라, 증권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에서도 비대면 채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
- › 광범위한 지점망을 기반으로 한 은행권에 비하여 판매채널에서 열세인 증권회사가 열세를 만회하고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 제공
- › 향후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에서의 경쟁 역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

○ 증권회사의 비대면 채널 역량 강화 필요

- › 현재 위탁매매 중심의 HTS, MTS의 고도화
 - 다양한 금융상품의 비대면 판매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
- › 나아가 단순한 판매에서 비대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
 - 비대면 플랫폼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으로는 고객 요구를 충족할 수 없음

종합

○ 2018년 3분기 기준 국내 증권산업은 위탁매매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

- › 위탁매매 부문의 수익성 개선에도 지점망 축소하며 조직운영의 개선을 추구
- › 투자은행 부문은 부동산PF 등의 영업확대로 성장세를 유지
- › ELS와 ETF시장, 일임형랩 등의 상품판매 및 자산관리 부문도 완만한 성장

○ 2019년 국내 증권산업의 수익구조 다각화는 더욱 진행, 수익성은 2018년과 유사

- › 금융상품 및 자산관리 부문: 중위험·중수익 형태의 금융투자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
- › IB 부문: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규제 완화, IB 업무영역 확대 등으로 성장세 지속 예상
- › 위탁매매 부문: 수수료율 하락이 지속화되고 있어 수익성 하락이 예상
- › 증권업 디지털화가 국내서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에 선제적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



Thank You!